

## 통일부, '제1회 6·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' 기념행사 개최(6.28.)

- '24.12.20. 「6·25납북자법」 개정에 따른 '6·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'  
법정기념일 지정 이후 첫 기념행사 추진

- 통일부는 6·25전쟁 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6월 28일(토) 오전 10시,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'제1회 6·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' 기념식을 개최한다.
- 2024년 12월 20일에 「6·25납북자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기념해 오던 '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'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다.
  - \* 「6·25납북자법」 제11조의2 제1항 : "납북자를 기억하고 납북피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**6월 28일**을 **6·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**로 한다."
  - 「6·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」는 북한이 6·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'6·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날'로 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다.
  - 법정기념일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는 통일부와 「6·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」가 공동으로 주관하며, 정부 관계자 및 납북자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.
- '제1회 6·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' 기념행사는 기념식을 포함하여 납북자 가족 헌화, 기념공연 순으로 진행된다.

- 먼저, 기념식에서는 김남중 통일부 차관과 「6·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」 이성의 이사장의 기념사, 그리고 주요 내빈들의 격려사를 통해 법정 기념일 지정 축하와 함께 납북자 가족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.
- 이어서 기념행사에 참석한 내빈과 납북자 가족들이 납북자들의 생환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국화꽃 헌화 행사를 진행한다.
- 부대행사로 다큐멘터리 음악극 「귀환의 길」\* 공연이 진행되고, 납북자 가족이 편지를 낭독하며, 모든 참석자들이 「만나야하리」(‘6·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’歌)를 제창한다.

\* 주요 내용 : 6·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북된 사람들의 아픔을 기억하고, 가족들의 기다림과 슬픔을 나누며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소망의 목소리를 담은 공연

□ 정부는 앞으로도 민족 분단으로 인해 발생한 인도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.

붙임 : 「제1회 6·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」 기념행사 계획

담당 부서	납북자대책팀	책임자	팀 장	차덕철 (02-2100-5591)
		담당자	서기관	김무현 (02-2100-5597)



**1 개요**

- 행사명 : 「제1회 6·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」 기념행사
- 일시·장소 : '25.6.28.(토) 10:00~11:30,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
- 참석인원 : 주요 내외빈 및 6·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회원 등 300여 명
- 주요 내용 : 기념식(기념사 및 격려사), 헌화, 음악극('귀환의 길') 공연 등

**2 세부 일정**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10:00~10:05	(5')	▪ 국민의례	
10:05~10:10	(5')	▪ 내빈 소개	
10:10~10:15	(5')	▪ 기념사	통일부 차관 전시납북자단체 이사장
10:15~10:35	(20')	▪ 격려사	주요 내빈
10:35~10:40	(5')	▪ 기념관 운영관리 경과보고	납북자기념관장
10:40~11:00	(20')	▪ 참석 내빈 및 가족 헌화	
11:00~11:25	(25')	▪ 음악극 '귀환의 길' 공연	
11:25~11:30	(5')	▪ 기념사진 촬영	
11:30~12:30	(60')	▪ 오찬	
12:30~13:30	(60')	▪ 기념관 관람	